⑦ 연합뉴스 │ < ▷ 다 대통령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알; >

Q



뉴스홈 | 최신기사

<월드컵축구> 허정무호, 위기탈출 해법 찾을까?

NEWS

송고시간 | 2008-10-10 10:40











이영호 기자

<월드컵축구> 허정무호, 위기탈출 해법 찾을까?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승리보다 무승부가 더 많은 허정무호가 '중앙아시아 축구의 자존심' 우즈베키스탄을 상 대로 위기탈출의 대안 찾기에 나선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 아지역 최종예선 A조 꼴찌(2패)로 밀려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예선 2차전(15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소집 훈련을 시작한 터라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은 새 얼굴과 오랜만에 복귀한 자원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4-4-2 전술 실험 통할까?

허정무 감독은 UAE전에 대비해 우즈베키스탄전에 4-4-2 전술 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UAE전을 분석한 결과 투톱 스트라이커 기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박지성의 활용법이다.

허 감독은 그동안 박지성에게 중앙 미드필더와 윙포워드를 자유 롭게 넘나들게 하는 '프리 롤'을 부여하는 소위 '박지성 시프트'를 써왔다.

하지만 4-4-2 전술에서 박지성은 측면 미드필더로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중앙으로 쇄도하거나 볼을 배급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른쪽 미드필더는 이청용(서울), 김형범(전북), 최성국(성남)이 경쟁하고 있다. 이청용의 경우 3차 예선부터 좋은 활약 을 펼친 터라 주전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

투톱 스트라이커는 정성훈(부산), 신영록, 서동현(이상 수원)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성훈은 190cm의 장신에 발재간과 볼키핑 능력까지 갖췄고, 신영록은 강한 몸싸움으로 볼을 지키는 역할에 탁월하다. 또 서동현은 고공 플레이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누굴 먼저 내보낼지 코칭스태프의 고민거리다.

중앙 미드필더도 김남일(빗셀 고베)과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이 빠지면서 기성용(서울)-김정우(성남) 조가 유력하지 만 역습을 고려할 때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수비력이 뛰어난 조원희(수원)와 짝을 맞추는 조합도 가능하다.

포백은 김진규(서울)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고 이정수(수원)도 발가락을 다쳐 강민수(전북)-곽태휘(전남)가 중앙 수비를 맡게 됐다.

왼쪽 윙백은 김동진(제니트)-김치우(서울) 조가, 반대쪽은 이영표(도르트문트)-오범석(사미라) 조가 경쟁체제에 있지만 김동진과 이영표가 먼저 선발로 나설 공산이 크다. 골키퍼는 정성룡(성남)의 몫.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그래도 승리가 필요하다

허정무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전을 '옥석 가리기'로 규정했다. 선수들을 골고루 뛰게 하면서 UAE전에 나설 베스트 11의 윤곽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부진에 따른 축구 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즈베키스탄전 승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화끈한 골 사냥이 아니더라도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원한 공격 축구를 펼쳐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허정무호는 데뷔전 패배 이후 11경기 연속 무패행진(5승6무)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답답한 공격력과 함께 유달리 무승부 결과가 강조되면서 위기에 빠져 있어 탈출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새로운 얼굴이 많고, 4-4-2 전술의 활용을 예고한 터라 유기적인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즈베키스탄전 예상 베스트 11(4-4-2)

1
1.1
김동진 박지성
(김치우)
1.1
⊢ , ।
정 강민수 김정우 정성훈
111
성 신영록
(서동현)
룡 곽태휘기성용
111
⊢ı
이영표이청용
(오범석)
1.1
LJ

hom9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10 10:40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 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결국 우크라에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1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2 ⊕ 66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대병원 자원봉사 <u></u> 6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sns **f**





| 新聞機能の | 「おおお | 「おおか | 「おおか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